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법칙성 ‘연기’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금강대 총장 편역)

4. 법에 귀의하며 받들다

인간은 의지할 곳이 있다
앞에서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의지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부처님이 가르친 바를 살펴 보았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그대들이 의지할 곳은 사물이 아니며, 재산이 아니며, 사람이 아니며, 다만 법 뿐이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불멸 이후 불제자들에게도 분명히 파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얼마까지 살아야 한다는 왕사성 교외의 죽림정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아난다는 전부터 친분이 있던 나라의 대신을 만났다. 대신은 부처님 사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지내는데 대해 걱정스레 물었다.

“세존(世尊)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누가 세존에 의해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이 의지할 곳이라’ 라고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난다가 말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승가가 인정한 장로들에 의해 추천된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난다가 재차 답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所依)도 없으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화합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난다가 대신을 향해 대답한 말은 매우 명쾌하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지 않습니다. 법이아말로 우리들이 의지합니다.”

그러면 법이란 무엇일까. 이제 그 문제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러 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근원에는 법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논사(論師)들은 이 법을 지적해 근본진여(根本眞如)의 법이라고도 부른다. 법이란 무엇이라는 문제는 이러한 법칙성으로서의 법을 파악하는 데 있다.

존재 모습으로서 법칙성
법을 옛날의 논사들은 가끔 ‘궤지(軌持)’의 두 글자로 표시했으며, 또 ‘능지자성, 궤생승해(能持自性 軌生勝解, 능히 자성을 보존하며 궤로써 승해를 생겨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설명은 오늘날에도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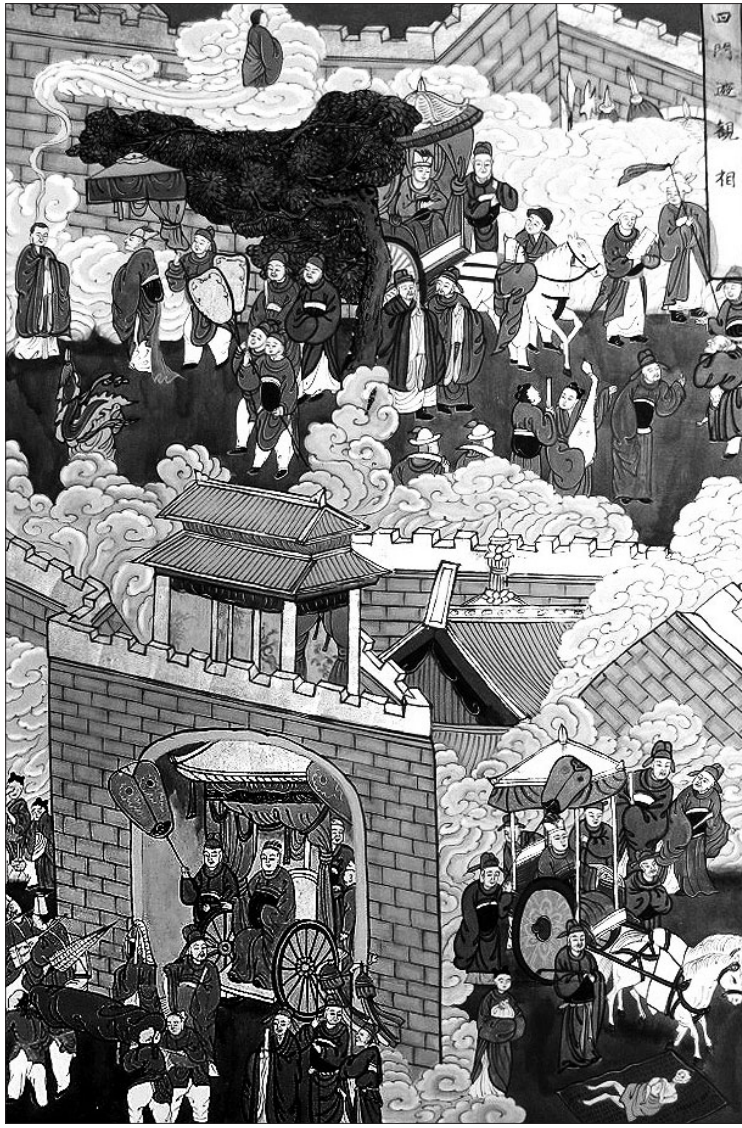
“능히 자성을 보존한다”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뜻한다. 자주 변하는 것은 일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며 진실한 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옛 논사들은 ‘지(持)’라는 한 글자로서 지적하고 있다.

또 ‘궤(軌)’라는 것은 궤범(軌範) 즉 법칙의 뜻이다. 모든 것에는 그것의 모습이 있다. 모든 존재에는 그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알며 사람은 비로소 모든 것의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법칙 또는 법칙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법을 말하는 것이다. 법칙 그 자체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법칙은 또 그것에 의해서 사물이 규정되는 것이다. 즉, 논사들이 “법이란 ‘궤지(軌持)’이다”라고 주석한 것은 오늘날 “법이란 법칙성”이라는 말과 같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러한 법칙성으로서 법을 존재 그 자체 모습 속에서 발견했다. 모든 것은 흐른다. 일체는 무상하다. 그러나 존재의 흐르는 방법 일체의 무상한 모습 속에는 법칙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존재의 법칙성은 꿈꿈이 생각해 보면 그대로 인간 현실의 모습을 설명하는 법칙이며, 인간이 좀 더 향상된 모습을 실현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비로소 무상한 세계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흘러가는 존재의 중심에서 변하지 않을 것을 얻었으며, 사물도 사람도 의지할 바 없는 세상에서 마침내 의지할 바를 파악한 것이다.



지라산 천은사 팔상전의 사문유관도. 부처님은 출가 전 왕성 네 곳에서 생노병사의 모습을 보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원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있으며 그것은 마치 하나의 큰 그물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성’으로서 법을 모든 존재에 즉시 응해 파악하는 것은 말하기는 쉬우나 이것을 내 이해로서 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관점을 우리에게 옮겨 생각해 보면 제2의 표현으로서 ‘상의성(相依性)’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상의성’이라는 말은 부처님 스스로 법을 설명하며 쓴 말이지만 다시 사리불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갈대의 묶음은 서로 의지함으로서 비로소 설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의 일부로서 내 몸 주변을 살펴봐도 모든 사물은 서로 관계하며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들도 또한 모두 이 법의 표현이지만, 그것은 ‘상의성’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 이 법은 ‘인과성(因果性)’으로서 규정할 수 있다. 관점을 더욱 요약해서 어떤 개체에 관해서 보면 그 사물이 있는 것은 모두 여러 가지의 인(因) 혹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因), 과(果)의 관계 속에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 법의 표현이다.

부처님은 이 같은 법의 상의성 혹은 인과

성을, 하나의 공식적인 표현 방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있음으로 연(緣)해서 이것이 있었다.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겼다.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없었다. 이것이 멸(滅)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멸하였다.”

공식적인 표현을 요약해서 말하면 ‘인연하여 생겨난다’ 연생(緣生)과 ‘인연하여 말한다’ 연멸(緣滅)로 줄여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예부터 ‘연생연멸’ 법칙이라고 말하는 데 다시 요약해 ‘연기(緣起)’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연기’의 공식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생각해 왔다. 한 예로 ‘늙음(老)’과 ‘죽음(死)’이 문제라고 한다면 ‘무엇에 의해서 늙고 죽음이 있는 것일까’라고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 해결은 ‘무엇을 멸함으로써 늙고 죽음이 없어지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법은 ‘연기’의 공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세존에 의해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 그의 연기를 본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원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경계에 집착해 살아가는 중생들 삼계화택을 벗어날 道를 알아야

1. 佛法은 학문의 군더더기인가 ①

그대가 부처를 논함은 오로지 성(性)을 위주로 할 뿐이니, 성이라 하면 유자도 또한 밝혔으므로 이단(異端)에서 취할 것은 없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학문의 군더더기며, 천하에 이익이 없음이 아니겠는가.

불교와 유교의 성(性)을 말함이 이 둘은 같지만 알맹이는 다른데, 그대는 오히려 구별하지 못하므로 다시 그대를 위해 분석하겠다. 중용(中庸)에 말하기를 “천명(天命)을 성(性)이라 말하고, 성(性)을 따름을 도(道)라 말한다” 했으며, 맹자(孟子)는 곧 ‘성의 착함을 말하면 반드시 요·순(堯·舜)을 일컬었다’ 했으며, 또 말하기를 “그 마음을 극진히 한 자는 그 성을 알며, 그 성을 안다면 그 하늘을 안다” 했으며, 주자(朱子)가 인·의·예·지(仁·義·禮·智)로써 사람 성품의 강령(綱領)을 삼은 것 등은 마치 불의 성질은 뜨겁고, 물의 성질은 시원하다 말함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물과 불이 말미암아 일어난 바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하늘보다 뒤떨어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다. 능엄경에는 말하였다.

‘각해(覺海) 성품은 맑고도 원만하며 맑고도 원만한 깨달음은 크고도 오묘하다. 원명(元明)이 비치어서 소(所)를 생(生)하고 소(所)가 성립되면 비추는 성품은 없어진다. 미망(迷妄)하여 허공이 있고 허공을 의지하여 세계가 성립되며 국토를 이루니 깨닫고 아는 것이 곧 중생이다.’

이는 착함과 악함, 생각이나 의논으로 미칠 곳이 아닌데, 그 꿈 경계에 집착하여 실제 있는 줄 여기고 밝게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수치(修治)함이 있겠는가.

슬프다. 생령(生靈)이 이를 미혹함이 오렴이며, 이들 미혹함을 따라서 삼계화택(三界火宅)의 꿈 속에서 윤회(輪回)를 쉬지 못하고 모든 고뇌를 받음으로 모를 지기 초탈(超脫)하는 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사실하심은 권교(權敎)가 있고 실교(實敎)가 있으며, 시교(始敎)가 있고, 종교(終敎)가 있으며, 점교(漸敎)가 있고 돈교(頓敎)가 있으며, 현교(顯敎)가 있고 밀교(密敎)가 있으며, 다시 원교(圓敎)의 불사의승(不思議乘)으로써 두루 넓게(恢張) 중생을 거두어 교화(攝化)하셨다.

최후에는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 涅槃妙心)을 가삼 존재에게 부촉하

시어 역대로 서로 전하며 교외(敎外)에 따로 행하시니, 모든 부처님의 교문(敎門)이 갖추지 않음이 없으며, 중생의 기의(機宜, 선군이 있어 교화하기에 알맞음)가 다하지 않음이 없다.

슬프다. 그 가르침이 동진(중국에 진작(振作)함이 늦어 성인이 없기를 1천여 년이 멀어, 그러나 듣고 아는 자가 또한 행과(行果)를 갖추지 않음이 없이 크게는 성인이 되고 지인(至人)이 되며, 작게는 현인(賢人)이 되고 선사(善士)가 되어 모두 성불(成佛)의 정인(正因)을 잃지 않았으며, 겨우 서사(書寫)하여 수지독송(受持讀誦)함에 이르러서도 공덕이 한계가 없으며 복도 끝이 없었다.

이러하므로 사방의 진제(眞諦)와 천지의 신기(神祕)가 또한 그 도를 존중하지 않음이 없이 그 법을 받들어 있는 곳을 따라 지지고 보호하였다.

그러므로 그 책으로 천지에 제사 지내면 천지가 감응하고 귀신에게 요구하면 귀신이 따른다.

어찌 천지와 귀신만 홀로 그러할 뿐이겠는가. 온 나라의 영토(率土)의 광대한 과 모든 백성(兆民)의 중성(衆盛)함에 이르기까지 그 법을 들은 자는 감격하여 교화되지 않음이 없으므로 상·벌(賞·罰)의 수고로움을 기다리지 않고 미연(靡然)히 나아가 스스로 교화되고 변화하여 극치(極致)의 백성이 되니, 양양(洋洋, 한 없이 넓음)하다. 그 성대함이며, 또한 사람이 완악하고 사나운 자는 비록 가르쳐도 되지 않지만 만일 그 부모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덕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처님은 대자·대비·대성·대해·대이익·대인연으로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어 인간·천상의 마음을 감격케 하시니, 진실로 세간 부모와 족히 비교할게 아니다.

세간의 부모는 형체를 받은 부모이고, 부처님의 아버이 된 성품을 받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니, 어찌 차마 스스로 순종하지 않겠는가.

저 공자의 말씀에 ‘다스리지 않아도 어지럽지 않으며,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믿으며, 교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하여, 방방(蕩蕩, 마음씨 유연한 모양)하여 백성들은 무엇이랴 이름 붙일 수 없다’ 하셨는데, 믿을만하다 하겠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불교사업에 투자 하실분

1. 전국 사찰 및 포교원 상대로 현재 진행중 소자본 1억에서 3억으로, 고소득 보장 월 소득 투자금 1억에 1천만원 가능.
2. 매일 매일 소득보장. 투자금에 대한 담보 가능 돈을 벌고 싶으신분. 직접 방문 요함.
3. 남골 봉안당 투자 하실분.
4. 경기 남부 지역.
5. 서울에서 1시간 거리.
6. 오전구 허가필.
7. 자세한 내용은 전화 바람.

문의전화 : 안성 백련사 031)673-7227

Business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시어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o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영숙)

사주학 무료 공개 강좌

1. 일 시 : 1월 26일 (월) 오전 11시
1월 28일 (수) 오후 1시
1월 29일 (목) 오전 11시
2. 과 목 : 명리·기문·관상·수상·육효·육임
3. 장 소 : 정운 역학 연구원
H·P : 010-7154-8835
02)867-9681
난곡 입구 사거리 버스정류장(서울 신림동) 정자당 약국 뒷 건물
4. 강 사 : 전 동아 불교문화센터 명리·기문학 강사 전 호서대 대학원 사회교육원 동양학부 주임교수

처음 명리를 접하시는 분이나 이미 공부를 하셨어도 오행학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그동안 공부한 실전 감점비법을 활용 자세히 지도해 드립니다.

정운 역학 연구원